

1990년~2014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고려인 공동체의 변화와 전문성 증대

송 잔 나*

- I. 머리말
- II. 전소/전리인구총조사 (고려인)
- III.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거주 고려인 공동체의 변화
- IV.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거주 고려인 공동체의 전문성 증대

• 국문초록

이 글은 오늘날 고려인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려인 공동체의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 맞추어 밝히고자 했다.

특히 고려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가 뛰어난 이유를 거주지 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1937년 강제이주 이전까지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연해주 지역에서 살았지만 1920년대에도 러시아 전역에 걸쳐 살고 있었음을 인구통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강제 이주 이후에도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련 전역에 걸쳐 살았다.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고려인들은 거주 조건을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해 성실히 노동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었다.

* Сон Жанна, 러시아 모스크바국립 고등경제대학교 교수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소련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의 측면에서 고려인들은 콜호스를 통해 자신의 민족 문화를 간직하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소수민족으로 소련에 살아남기 위해 교육 측면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결과, 오늘날 70% 이상의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여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등장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고려인, 인구조사, 러시아, 중앙아시아, 교육, 언어

I. 머리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민족 집단의 생성과 발전 및 변화에 있다. 이 과정들은 전체 역사의 흐름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민족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각 집단의 발전을 세계 민족의 인종지학적 역사의 부단한 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일련의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제고하고 그 발전 현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최근 10년 동안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민족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의 민족 집단, 사고방식, 자기 정체성, 민족적 동일성이 변화하는 문제는 비단 러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적 차원에서 단합을 위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주로 고려인들의 민족적 동일성, 자기 정체성, 사회주의적 지향성,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고려인들이 밀집 거주와 분산 거주 지역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로스토프 주, 볼고그라드 주, 북 카프카스, 연해주, 사할린 등이 그런 지역의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다양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강제이주가 민족 문화의 발전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본다. 게다가 “고려인 고유의 실용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동경이 접목되어, 탄압받은 민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보여주는 소극적 태도는 그들의 동화를 부추겨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게끔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¹⁾

소련의 땅 극동으로부터,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 강제이주당한 비극적 역사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자신의 두 번째

1) Волкова Т.В.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вопросу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4 г., № 3. С. 29.(T.V. 볼코바, 러시아의 고려인들)

조국을 러시아(소련)라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1930년대 말까지 형성된 소련인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으로 되어버렸고 자신의 조국(소련)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²⁾

여기에서 ‘고려인 공동체의 변화와 전문성 증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려인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에 변화가 없었더라면 전문성 증대와 그 덕분에 고려인들이 거둬들인 오늘날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려인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인종 집단의 민족적 특성 중의 하나는, 교육 받고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민족문화의 동일화 조성 과정은 산업사회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Y. 하버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적 통합방식으로써의 민족의식은 새로운 시대가 가지는 특징이다.³⁾

러시아 극동으로의 자발적인 이주 순간부터 시작된 고려인들의 역사는 민족문화의 동일성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이나 문화적 소속감에 대한 전통적 애착이 약화되었다.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성은 인간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렸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 철학 등의 주된 주제 중 하나가 고유한 민족 문화적 동일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형성과 전파는 ‘동일화로부터 자신이 속한 정치문화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통과 더불어’ 생겨나는 일부 보편적 의식의 형성에 대한 구상으로 귀결된다.⁴⁾

2) Бугай Н.Ф.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С. 29. (N.F. 부가이,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

3) Хабермас Ю. Гражданство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 Хабермас Ю. *Демократия. Разум.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Московские лекции и интервью*, М. Академия. 1995. (U. 하버마스, 국적과 민족동일성, U. 하버마스, 민주주의. 이성. 도덕성. 모스크바 강연 및 인터뷰. 모스크바: 아카데미야, 1995)

4) Там же, С 222. 앞의 책 222쪽.

민족 집단의 전문성 확대에는 종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한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한다는 정부 측의 인식과 지원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민족적 동일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특징, 민족사고방식의 변형에 있어 이주 과정의 역할 탐색, 민족 갈등의 조정, 문화적 동일성과 사회문화 및 이종/다 문화 간 소통의 현대적 경향 탐구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현시대가 당면한 과제들이다.

위에 언급된 모든 문제들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영토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도 해당된다. ‘고려인’에 대한 개념의 내용적 진화를 분석한다면, 즉 변화하는 러시아의 현실 여건에 맞춰 형성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전문성 증대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고려인들의 자의식과 민족의식 변화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사회과학자, 사회학자들의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당히 높아서, 가끔씩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거주하는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민족 집단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든가, “고려인을 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 집단’이라 부르는가?”라는, 그에 상응하는 질문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고려인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치 무대에서도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러시아 땅에 고려인들이 나타나고, 1864년부터 러시아 문화로의 적응이 시작된 역사를 분석하지 않고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함께 동일한 역사를 겪었으며, 20세기의 모든 역사적 단계마다 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했던 고려인들은 전통적 규범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재평가를 했으며, 러시아 역사의 매 전환기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의식을 변환시켜왔다.

동일한 사회문화적 공간에 거주하는 한 민족 집단의 사고방식과 태도

는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발전 전반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고려인의 문화적 전통 특유의 사회 상호관계 시스템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사회적 지배 집단이 제시하거나 가끔은 그들에게 강요하였던 게임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러시아 문화의 표준이고 가치며 지향하는 바였지만, 차츰 이 나라로 이주시킨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일정부분 노력한 소비에트 성향의 문화로 확대되었다. 고려인들이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관계의 보존에 필수적인 몇 가지를 고스란히 지켜낸 사실은 중요하다.

II. 전소/전러인구총조사 (고려인)

고려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가 뛰어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먼저 거주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 2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의 대규모 이주정책 조건에서 지리적 요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1920년대 이전의 초기 고려인 이주민들이 준수하였던 영토와 문화적 속성에 따른 전통적인 구속력은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해졌다. 제정러시아의 이주정책과 ‘신뢰할 수 없는 지리’ 이론은 볼셰비키 공산당원들에 의해 유지, 강화되었다.⁵⁾

내전 종결을 전후하여 국내에는 통제 불능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지도부는 1924년 소련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전소이주위원회를 창설했다.⁶⁾ 소련 전소이주위원회와 함께, 바이칼-

5) Сон Ж.Г.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ил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1920-1930.* М., 2013. С. 404-417. 손 D.G. 러시아 고려인들: 민족집단 무한의 권력과 무권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6) РГАЭ Ф 5675, о п 1, д 1.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25. №49. С 371.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문서.

아무르 철도간선 건설공사 지역과 기타 소련의 주요 건설장 내 농사기지로의 이주와 창설 과제 책임을 부여받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수용소관리총국 산하 이주과도 존재했다. 이후 1936년 6월 10일 소련정부의 결정으로, 소련 전소이주위원회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관할로 이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이주과가 편성되어 1939년까지 존재했으며, 소련이주관리총국은 1953년까지 유지되었다.⁷⁾

소련정부의 이주 정책은 개척을 목적으로 땅이 넓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접경 지역으로부터 이민족들을 내쫓는 지도도 병행하였다. 이럴 경우 소속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내쫓기는 대상 1순위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믿지 못할 존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컸다.

고려인들은 그런 ‘믿지 못할 존재’의 지위를 갖게 되고 말았다.⁸⁾ 극동으로부터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게다가 고려인들 중에는, 특히 젊은 층 가운데에는 자신이 그때껏 살아온 지역을 떠나 소련의 중심지역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많았다.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 이미 러시아어를 구사했으며, 대도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기를 갈망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1926년, 1939년,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소련에 거주한 전소인구조사자료이다. 1926년 전소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소련에 거주한 고려인은 모두 86,999명이며 그 중 농촌 거주민이 77,843명이었고 도시 거주민은 9,156명이었다.⁹⁾

7) Тамже 앞의 책.

8) Сон ЖГ. Тамже С. 418. 송 D.G. 앞의 책.

9)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26 года. М.: Издание ЦСУ Союза ССР, 1928-29. Том 9. Стр. 34-51. Том 10. Стр. 9-13. Том 11. Стр. 8-17. Том 14. Стр. 6-16. Том 15. Стр. 8-13. Том 16. Стр. 8-12. Том 17. Стр. 8-25. Таблица VI. Население по полу, народности. 1926년도 전소인구총조사

〈표 1〉 1926년 전소인구총조사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거주 민족 구성

민족	수								
	전체 주민			도시민			농촌민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모두
소련 전체 인구	70781 593	75855 937	14663 7530	12782 245	13334 433	26116 678	57999 348	62521 504	12052 0852
소련 거주 고려인	47 945	39 054	86 999	5645	3511	9156	42 300	35 543	77 843
러시아소비에 트사회주의연 방공화국	47 817	39 037	86 854	5546	3497	9043	42 271	35 540	77 811
벨라루스 사회주의연방 공화국	1	1	2	1	0	1	0	1	1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연방 공화국	90	14	104	71	13	84	19	1	20
자카프카스 사회주의연방 공화국	8	1	9	8	0	8	0	1	1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연방 공화국	29	1	30	19	1	20	10	0	10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영토 내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자카프카스, 우즈베키스탄사회주의연방공화국 등지에 고려인은 살고 있었으며 모두 14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농촌민은 32명, 도시민은 113명이었다.

우크라이나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예를 보면, 고려인 수가 84명(남성 71명, 여성 13명)에 육박하는데 돈바스의 경우 광산에서 일하는 고려인들이었다. 다른 지방에서도 도시민 수가 압도적이었으며 고려인들 사이에 삶의 양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이 감지되었다.

도시 수준에 맞는 임금을 받을 목적 혹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한 단순 목적을 갖고 이 지역으로 145명이 이주했다. 도시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작정이었으므로 경력을 쌓으려 애썼다.

1939년도 전소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에트 고려인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만 총 77개의 변경주, 주, 자치공화국 등에 흩어져 거주하였다.¹⁰⁾ 이 조사가 극동으로부터 소비에트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한 1937년 이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의 다양한 지역에는 고려인 13,524명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939년 전소인구총조사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별, 성별 도시민과 농촌민의 분포(고려인)¹¹⁾

		수								
		전체 주민			도시민			농촌민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모두
	소련 전체 인구	81 694 889	88 862 204	170 557 093						
	소련 거주 고려인	97 071	85 268	182 339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거주 고려인									
1	알타이 크라이	72	56	128	38	22	60	34	34	68
2	아르한겔스키 크라이	89	11	100	28	5	33	61	6	67
3	바시키르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17	15	32	10	6	16	7	9	16
4	부랴트몽골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134	68	202	50	49	99	84	19	103
5	불고그라드 주	1472	1318	2790	121	73	194	1351	1245	2596

10)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39 года*. Таблица 15д.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в населения. РГАЭ. Ф.1562 Оп. 336 Д.966.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demoscope.ru/weekly/ssp/rus_nac_39_gs.php?reg=81&gor=2&Submit=OK, 1939년도 전소인구총조사.

6	볼로그다 주	12	5	17	9	4	13	3	1	4
7	보로네시 주	20	9	29	12	9	21	8	0	8
8	다게스탄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29	18	47	27	18	45	2	0	2
9	하바롭스키 크라이 (유태인자치주 포함)	2	1	3	2	1	3	0	0	0
10	야바노프 주	17	13	30	16	13	29	1	0	1
11	이르쿠츠크 주	425	198	623	202	134	336	223	64	287
12	칼미크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4	2	6	1	0	1	3	2	5
13	카렐리야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16	4	20	3	4	7	13	0	13
14	키로프 주	62	3	65	13	2	15	49	1	50
15	코미 소비에트사회주의자 치공화국	28	11	39	5	5	10	23	6	29
16	코미 페초르 관구	3	4	7	3	4	7	0	0	0
17	몰로토프(페름) 주, 코미페름 민족관구 포함	17	5	22	11	5	16	6	0	6
18	크라스노다르스키 크라이	99	118	217	31	17	48	68	101	169
19	아디게이 자치주	6	3	9	3	3	6	3	0	3
20	크라스노야르스키 크라이	574	235	809	402	174	576	172	61	233
21	타이미르 민족관구	68	0	68	63	0	63	5	0	5
22	하카시 자치주	130	141	271	105	126	231	25	15	40
23	크림 소비에트사회주의자 치공화국	51	66	117	39	51	90	12	15	27
24	쿠르스크 주	19	12	31	15	9	24	4	3	7
25	레닌그라드	145	50	195	145	50	195	0	0	0
26	레닌그라드 주	157	56	213	148	54	202	9	2	11
27	마리스크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4	1	5	1	0	1	3	1	4
28	몰도바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8	1	9	2	0	2	6	1	7
29	모스크바	284	156	440	284	156	440	0	0	0
30	모스크바 주	384	243	627	349	201	550	35	42	77
31	무르만스크 주	12	5	17	12	5	17	0	0	0

32	포볼지예 독일인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147	9	156	3	0	3	144	9	153
33	아르한겔스크 주, 네네츠 민족관구 포함	43	0	43	61	6	67	40	0	40
34	고리키(니제고랏스크) 주	27	12	39	10	9	19	17	3	20
35	하바롭스키 크라이, 니즈 네아무르스크 주 포함	3	3	6	3	3	6	0	0	0
36	노보시비르스크 주	200	139	339	127	91	218	73	48	121
37	알타이 크라이, 오이로트 자치주 포함	20	9	29						
38	옴스크 주	145	91	236	93	53	146	52	38	90
39	옴스크 주, 타르스크 관구	9	8	17	2	1	3	7	7	14
40	옴스크 주, 야말로네네츠 관구를 포함한 야말로 옴스크 주 포함	6	1	7	5	1	6	1	0	1
41	옴스크 주, 토볼스크 관구	2	2	4	1	2	3	1	0	1
42	옴스크 주, 한티만시스크 민족관구 포함	6	2	8	1	1	2	5	1	6
43	오렌부르크 주	49	36	85	24	18	42	25	18	43
44	오를롭스크 주	16	8	24	12	8	20	4	0	4
45	펜자 주	6	3	9	9	3	12	3	0	3
46	페름 주	341	27	368	148	13	161	193	14	207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32	32	64	17	22	39	15	10	25
47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우수리스크 주 포함	20	11	31	9	6	15	11	5	16
48	로스토프 주	47	38	85	35	33	68	12	5	17
49	랴잔 주	4	3	7	2	2	4	2	1	3
50	쿠이비셰프(사마라) 주	101	38	139	85	33	118	16	5	21
51	사라토프 주	61	30	91	56	19	75	5	11	16
52	사할린 주	7	2	9	5	1	6	2	1	3
53	스베르들롭스크 주	62	46	108	34	25	59	28	21	49
54	세베로 오세틴스크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26	13	39	16	7	23	10	6	16
55	스몰렌스크 주	5	5	10	1	4	5	4	1	5
56	스타브로폴스키 크라이,	1	1	2	1	0	1	0	1	1

	카라차예프자치주 포함									
57	스타브로폴스키 크라이	65	43	108	10	3	13	55	40	95
58	탐보프스키 주	12	8	20	9	4	13	3	4	7
59	타타르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54	18	72	53	18	71	1	0	1
60	트베리 주	7	1	8	2	0	2	5	1	6
61	옴스크 주, 토볼스크 관구 포함	2	2	4	2	2	4	0	0	0
62	톨스크 주	10	7	17	5	5	10	5	2	7
63	우드무르스크 소비에트사 회주의자치공화국	9	2	11	5	1	6	4	1	5
64	이르쿠츠크 주 우스티오르딘스크 민족관구	23	9	32	23	9	32	0	0	0
65	하바롭스키 크라이	132	50	182	34	27	61	98	23	121
66	하바롭스키 크라이, 캄차트 주 포함	8	2	10	3	0	3	5	2	7
67	하바롭스키 크라이, 코랴크 민족관구 포함	4	2	6	0	0	0	0	0	0
68	하바롭스키 크라이, 아무르 주 포함	5	16	21	3	6	9	2	10	12
69	첼랴빈스크 주	192	99	291	60	19	79	132	80	212
70	체첸 인구시 소비에트사 회주의자치공화국	36	37	73	35	37	72	1	0	1
71	치턴 주, 아긴스크 민족관 구 포함	3	0	3	0	0	0	3	0	3
72	치턴스크 주	589	355	944	343	226	569	246	129	375
73	추바시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0	1	1	0	1	1	0	0	0
74	캄차트 주 추코트 민족관구 포함	2	0	2	1	0	1	1	0	1
75	야쿠트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	1184	487	1671	583	308	891	601	179	780
76	야쿠트 소비에트사회주의자 치공화국, 일단스크 관구 포함	530	288	818	423	231	654	107	57	164
77	야로스라프스크 주	59	30	89	16	20	36	43	10	53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8670	4854	13524	4490	2492	6982	4180	2362	6542

대규모 고려인 집단들은 볼고그라드 주에 살았는데 전체 2,790명 중 도시에 194명, 농촌에 2,596명이 거주했다.¹²⁾ 이르쿠츠크 주에는 623명이 거주했으며 도시에 336명, 농촌에 28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809명의 고려인은 크라스노야르 변경주에 거주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 576명은 도시에, 233명은 농촌에 살았다.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에는 각각 440명과 672명이 거주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중 77명만이 농촌에 거주 등록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도시에 거주 등록되어 있었다. 야쿠트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에는 고려인 1,671명 중 도시에 891명, 농촌에 780명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치타 주의 경우 944명이 거주했으며 그중 569명은 도시에, 375명은 농촌에 거주했다(표 2 참조).

사료를 통틀어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수와 관련된 분석은 최초의 시도이며, 이는 1937년에 모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와 일정 정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위에 제시된 1939년 전소인구총조사 표를 보면, 고려인들은 소련의 다양한 지방에 있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농촌 거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도 관측되었는데 이처럼 고려인들은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9년 전소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소련 내 고려인 수는 313,735명이었다.¹³⁾ 그들은 소련의 모든 공화국 전역에 거주 등록되었는데 그 수가 29명

11) *Всероссий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39 года*. Таблица 15д.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ГАС. Ф.1562 Оп. 336 Д.966.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demoscope.ru/weekly/ssp/rus_nac_39_gs.php?reg=81&gor=2&Submit=OK, 1939년도 전소인구총조사.

12)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была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ена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 в Волгоградскую(С(талин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고려인 중 일부는 극동 땅으로부터 볼로그라드(스탈린그라드)주로 강제 이주되었다.

(리투아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부터 138,453명(우즈베키스탄사회주의연방공화국)까지 다양했다. 그 외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91,445명, 카자흐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74,019명, 우크라이나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1,341명 등이 거주했다.¹⁴⁾

1970년 전소인구총조사에 의하면 등록된 고려인 수는 전체 357,507명이었으며 이 중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101,369명, 아르메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45명, 리투아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75명, 에스토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96명, 몰도바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106명, 아제르바이잔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139명, 라트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166명, 그루지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231명, 벨로루스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277명 등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¹⁵⁾

위의 자료는 고려인의 뛰어난 적응력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전체 공화국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각각의 민족 집단을 대표했다. 이 모든 공화국에서 고려인들은 거주 조건을 수용하고 완벽하게 적응해야 했는데 이것은 오직 성실한 노동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아량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소련이 해체된 후 첫 번째 인구총조사는 2002년에 실시되었다.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총 148,556명이었다.¹⁶⁾ 가장 큰 집단은 극동관구에 거주 등록된 61,946명이며, 그 다음은 남부 관구에 39,031명이었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인데 이를 보면 고려인의 전체 153,156명¹⁷⁾ 가운데 도시에 거주 등록된 사람

13) РГАЭ РФ (быв. ЦГАНХ СССР), фонд 1562, опись 336, ед.хр. 1566а -1566д (Таблица 3,4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родному языку).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전 국립중앙인민경제문서보관소).

14) Тамже 위의 문서 보관소.

15) РГАЭ РФ, фонд 1562, опись 336, ед.хр.3998-4185 (Таблица 7с.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одному и второму языку.)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16)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2002 года. 2002년도 전러인구총조사.

은 114,954명이며, 농촌에 거주 등록된 사람은 38,202명(표 4 참조)으로 고려인 인구의 75%가 도시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1926년, 1939년, 1959년, 1970년, 1989년, 2002년, 2010년도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고려인들은 1959년부터 소련의 모든 공화국에 거주했으며, 그 수는 29명(리투아니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아르메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부터 183,140명(우즈베키스탄사회주의연방공화국)까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2년도 전러인구총조사. 러시아연방 연방관구별 거주 고려인 수

민족	연방관구						
	중앙	북서	남부	프리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전체 인구수 중	3 800 0641	13 974 466	22 907 141	31 154 744	12 373 926	20 062 938	6 692 865
고려인 148 556명	16720	6903	39 031	9088	4071	10 797	61 946

〈표 4〉 2010년도 전러인구총조사.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

민족	수								
	총 인구			도시 거주민			농촌 거주민		
	모두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모두	남성	여성
소련 전체 인구수 중	142	66	76	10531	48	57	37	17	19
	856	046	809	3773	117	196	542	929	613
	536	579	957		546	227	763	033	730
고려인	153	79	73	114	58	56	38	20	17
	156	183	973	954	905	049	202	278	924

17)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г.* <http://www.perepis-2010.ru/>, 2010년도 러연방인구총조사.

〈표 5〉 1926년, 1939년, 1959년, 1970년, 1989년 전소인구총조사 및 2002년, 2010년
전러인구총조사 자료에 근거한 소련 거주 고려인 수에 대한 도표

인구총조사 실시년도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2010
소련	86,999	182,339	313,735	357,507	388,926	438,650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86,854	11,462	91,445	101,369	97,649	101,051	148,556	153,156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연방공화국	104	-	1,341	4,480	6,061	8,669		13,000
벨로루시 사회주의연방공화국	2	-	115	277	478	638		
몰도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99	106	212	269		
에스토니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40	96	103	202		
라트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49	166	183	248		
리투아니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29	75	140	119		
그루지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9	-	115	231	129	242		
아르메니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34	45	30	29		
아제르바이잔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90	139	130	94		
투르크메니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1,919	3,493	3,105	2,848		3,000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30	-	138,453	151,058	16,362	183,140		163,787
타지키스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2,365	8,490	11,179	13,431		6,000
키르기스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3,622	9,404	14,481	18,355		19,000
카자흐스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	-	74,019	78,078	91,984	103,315		100,000

〈표 6〉 2010년 러시아 연방 주체별 교육 수준에 따른 고려인 인구 수¹⁸⁾

지역 도시 및 농촌 인구	인구 수	교육 수준	대학후교육	고등교육	차지하는 비율
칼미크	1057	1057	3	203	19,2
도시	259	259	1	99	
농촌	798	798	2	104	
아스트라한 주	2344	2344	5	410	17,5
도시	901	901	2	240	
농촌	1443	1443	3	170	
카바르디노 발카르 공화국	3367	3367	12	611	18,1
도시	3089	3089	11	578	
농촌	278	278	1	33	
캅카스 크라이	1282	1282	8	310	24,2
도시	1072	1072	8	280	
농촌	210	210	-	30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16308	15 426	80	3876	23,8
도시	12942	12 176	72	3281	
농촌	3366	3250	8	595	
하바롭스키 크라이	7185	7176	69	2167	30,2
도시	6347	6347	67	2025	
농촌	838	838	2	142	
사할린 주	21828	21 828	83	5453	25
도시	19825	19 825	72	5258	
농촌	2003-	2003-	11-	195	
러 연방 7개 지역 전체 총계	53 371	52 480	260	13 030	24,4
도시	44 435	43 660	233	11 761	
농촌	8936	8820	27	1269	

교육 수준과 관련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17.5~30%¹⁹⁾의 고려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언어 사용 가능 표시를 한 153,156명 중 27.7%에 해당하는 42,384명²⁰⁾

18)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г.*
<http://www.perepis-2010.ru/>, 2010년도 러연방인구총조사.

19) *Там же* 앞의 책.

20)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г.*
<http://www.perepis-2010.ru/>, 2010년도 러연방인구총조사.

이 한국어가 구사 가능하며, 나머지는 자신의 모국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표시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라 여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0년은 첫째, 70년보다 더한 세월이 흘러, 4~5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러시아어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고려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어버렸다.

둘째, 고려인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전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했다.

Ⅲ.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거주 고려인 공동체의 변화

위에 제시된 통계자료는 소련과 러시아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양식과 방식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시기동안 고려인의 생활양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었다. 민족 집단을 결정하는 3가지 주요 요소인 언어, 지역, 문화를 고려인들은 사실상 상실했다. 21세기 초반에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70%이상의 고려인에게 모국어는 러시아어였으며 한국어는 외국어가 되어 버렸다.

오늘날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전 지역이며, 따라서 고려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 집단의 문화 자산에 대한 대대적 검열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위기는 고려인들을 비켜 지나가지 않았다.

고려인의 근면함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1950년대 고려인 콜호스의 노동성고가 두드러졌다. 고려인들의 노동업적에 대한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수백 명의 고려인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게 되었다. 다른 이에게 지기 싫어하고 근면 성실한 덕분에 중앙아시아에는 유명한 고려인 콜호스 백만장자도 탄생했으며

고려인들의 재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달리 말하면, 콜호스의 집단 노동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인의 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인생 전략 두 가지를 실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그들의 역사는 보여준다. 교육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길을 개척함으로써 인생의 ‘상승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유교윤리(노동 육성과 배움에 대한 동경)에 기초한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고려인 경작문화에 있어 기본이 된 것은 대가족과 친척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의 노동으로 작은 면적의 토지에 경작하는 전통적인 농작방식을 가리킨다.²¹⁾

고려인들은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인 소련에 헌신하면서 다민족국가에서 합당한 위치를 점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구소련에서의 삶이 뿌리째 바뀌는 급변하는 1980~1990년 말경에는 고려인 뿐 아니라 구소련 모든 민족이 스스로 살아남는 길 이외에는 도리가 없었다.

소련 해체로 시작된 민주적 개혁은 고려인의 사고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소비에트 인민’의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포스트소비에트 전체 공간의 고려인들의 분열을 긍정적 변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카자흐스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 ‘사할린 고려인’ 등으로 나뉘어져버렸다. 따라서 [예전의 ‘소비에트 고려인’과 같이] 그들을 통칭할 수 있는 정의는 포스트 소비에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 뿐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고려인들에게 러시아어는 말하고,

21) Волкова... 볼코바.

생각하며, 쓰는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고려인 학자인 G.N 김과 V.S. 한이 말하는 고려인 공동체 내 통합 부재에 관한 애화는, 최근 20년 동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저돌적으로 파고든 세계화 과정이 얼마나 불가피하며 만연한지를 말해 준다. 고려인 학자들이 주목하는 소비에트 시절에도 관측되었던 바로 그 통합이란 그 당시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지만 말이다.

낯선 이국땅에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생소한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집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 콜호스가 자신의 문화, 즉 ‘고려사람’의 문화를 간직하려 그토록 치열하게 노력했는지의 이유이다. 부정적인 분열의 순간도, 통합 자체가 상실된 것도, 러시아어사용자 집단 전체에 대한 비난도 ‘고려사람’이 내부적 자유 뿐 아니라 외부적 자유도 얻었음을 대변해준다. 지난 70년간은 소련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당신에게 ‘일본 스파이’가 아니냐고 말했던 때가 있었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자존감을 갖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내 민족 정치적 상황을 비교해보면 고려인들은 이들 국가에서 다시금 새로운 거주 조건에 적응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배민족의 민족 감정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옛 모국어인 러시아어에서 새로운 국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고려인들로 하여금 일자리와 언어의 평등을 얻기 위해 러시아 영토로 떠나게 만드는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언뜻 보기에는 고려인들이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민족적인 성향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민족간의 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튜멘국립대학교에서 I.S. 카라불라토바 교수 지도하에 ‘현대 튜멘인의 대중적 인식 속에 비친 러시아 고려인의 사회심리학적 인물탐구’를 주제

로 한 종합적인 사회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고려인의 특징 연구는 인지적, 사회적 개인별 성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려인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회학적 연구가 최초로, 일반적 성향묘사의 중요한 특수성을 띠며 진행된 것은 한민족과 그에 대한 평가와 연관이 있다. 사회적인 면은 사회 내 고려인들 지위의 특수성 속에서 표현되고, 개인적인 면은 민족을 대표하는 각 개인으로써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튜멘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이주민들 중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이주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튜멘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 러시아 고려인의 이미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곳에 복잡하게 조직된 현상이다.

고려인의 절제력, 환상적인 노동능력, 철저함, 정확함은 현대 고려인 이미지의 가장 주된 특징이며 ‘슬라브족과, 신뢰할 수 없는[존재로 간주되는] 동양 민족 사이에서 자주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민족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사례는 민족동일성 상실, 완전한 동화, 민족의식 부재에 관한 연구자들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간직한 채 5~6세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의 단서가 된다. 심지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도 타협을 추구하고, 노골적인 대립을 회피하는 것은 타민족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고려인 사고방식의 토대가 된다.

고려인의 내적 세계는 러시아와 고려인 - 두 가지 문화의 지속적인 교류의 영향과, 러시아로 이주한 다른 인종집단의 다양한 문화와의 상호작용 하에서 형성된다. 고려인의 문화는 다민족 국가의 문화 고리에 부분적으로 얹혀, 러시아의 다른 인종집단들에게 더욱 풍요롭고 이해하기 쉽게 된다. 고려인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국민이 되었지만 스스로의 민족적 특성을 고려인과 동일시하고 있다.

IV.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거주 고려인 공동체의 전문성 증대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소련 국민이 되고, 국가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고자 노력했다. 스탈린 사망 후, 탄압당한 많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고려인들 또한 전국에 걸쳐 이동할 자유를 획득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적 제한과, 1920년대 러시아어에 대한 얕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소련 전역을 옮겨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가 압하지야 고려인들이다.

카프카스 지역 압하지야에 최초로 고려인이 나타난 것은 1950대 말경이었다. 휴양 도시인 ‘가그라’는 소련 시절 북카프카스 흑해 연안의 진주였다. 그 시절 그 지역에 거주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이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관료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소련의 이 아름다운 도시 한 켠에 살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초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들 가운데 1958년 가그라로 맨 처음 이주한 고려인은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치던 교사 박 타티야나 알렉산드로브나(1923년생)가 있었고, 1962년 가족과 함께 이주해 개인 진료를 하는 침술 치료사 최 레프 세묘노비치가 있었다.

1992년까지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거주한 고려인은 모두 14가구였다. 그들 가운데는 의사, 교사, 농학자, 경제학자 외에도 압하지야 전역에서 유명한 가그라시 욕류콤비나트의 수석엔지니어였던 임 게라심 니콜라예비치(1947년생)가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전통적으로 채소재배를 했다.

부유한 고려인들이 가그라로 이주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군가는 건강상태로 인해 이주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개인구역에 주택을 샀을 것이며, 누군가는 일을 하러 가그라로 이주했을 것이다. 가그라에 사는 고려인 14가구는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한 마디로 서로 도우면서 한국 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2년이 되자 가그라의 고려인들의 삶은 바뀌었다. 그루지아와 압하지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두고 압하지아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또 다른 이유는 동원이 시작되어서였다. 건강한 남성들은 압하지아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했다. 압하지아 국민들은 떠날 것인지 혹은 싸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람 죽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은 당연하다.

재활의학과 의사 박 레프 발렌티노비치(1938년생)와 신경과 의사 레오니드 발렌티노비치 형제는 압하지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임무를 다하면서 남아있었다. 그들이 떠날 기회가 없어서 안 떠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군복무의 의무도 없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 박애정신, 국민의 도리가 그들을 압하지아에 남게 했고 공을 세우게 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을 뛰어난 전문가이며 훌륭한 인간으로 기억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박 레프 발렌티노비치는 전쟁이 끝나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레프 발렌티노비치는 전체 압하지아 연안과 가그라 유일의 신경과 의사로서 유명 시립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4시간 중 언제라도 환자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여가시간에는 운동을 즐기며, 2013년 압하지아 체스 챔피언십에서 2등을 차지한 체스 챔피언이기도 하다.

그의 부친 박 발렌틴 알렉산드로비치는 가족과 함께 1968년 가그라로 이주하였는데, 그곳에는 1958년부터 누이 박 타티야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압하지아 콜호스의 경제전문가로 일하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결코 가족주의, 상부상조, 민족전통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

압하지아인들은 또 한명의 고려인을 기억하고 존경한다. 그의 이름은 박 보리스 블라디미로비치로 정보부 사령관이자 카라테 유단자인 그는 ‘사무라이’, ‘두시만(아프가니스탄 반혁명도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박 보리스는 타시켄트 농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가

그라에 위치한 휴양소 ‘솔네치니’에서 농업전문가로 일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압하지아인을 위해 싸우러 나갔다. 그는 수차례 그루지아의 포로가 되었으나 매번 어떻게든 도망쳐 나오는 데 성공했다. 민첩성과 숙련됨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그에 비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다.

현재 가그라에는 수호엘리베이터의 경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그의 만형 박 바딤 블라디미로비치와 누이 류보피가 거주하고 있다. 가족의 진정서로 박 보리스에게 압하지아 전쟁 2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표창 - ‘용맹함에 대한 메달’이 추서되었다.

가그라는 작은 도시여서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처지이니 고려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그라의 유명인 산부인과 의사 허가이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1980년대 타시켄트에서 휴양차 이곳을 방문했다가 임 게오르기야 니콜라예비치에게 시집간 이후 계속 압하지아에 살고 있다. 남편은 일찍 죽고 딸이 하나 있다. 1992년 8월 14일 전쟁이 시작되자 여동생 편에 딸을 타시켄트로 보내고 자신은 정작 가그라에 남았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와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자신을 압하지아 민족으로부터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족 단결과 민족자긍심이 느껴졌다. 그들은 바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모두 함께 싸웠던 것이다.

허가이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압하지아 영웅’인 인민의회 의장이자 가그라 지역 의원인 루돌프 그리고리에비치 알순바의 지휘 하에 12년 동안 부상병 재활센터에서 일했다. 전쟁 때 수백 명의 부상병들이 재활센터를 거쳐 갔다. 자신의 전공분야 외에 침술치료도 병행한다. 재활센터에서 침술로 좋은 치료성적을 얻어 자신의 업적에 대한 증서와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블라디미르 리가이(1948년생)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는 1971년 카라간다 공장산하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동급생 O.N. 소

스코베츠(소비에트,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부관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의 부친 리가이 이반 알렉산트로비치는 1975년 가그라에 주택을 구입하고 어머니 리가이 올가 이바노브나와 가그라로 이주한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공장에서의 경력까지 블라디미르에게 카라간다 생활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1979년 부친이 사망하지만 앓았다면 말이다. 가족 중 차남인 블라디미르는 가그라로 이주하여 어머니를 돌보면서 계속 남아 살고 있다.

블라디미르에게 가그라에서의 초반은 녹록치 않았다. 엔지니어가 휴양지에서 직장을 찾는 일은 불가능했으므로 안내원으로 전직해야만 했다. 그 당시 안내원 채용이 있었고 그는 러시아어를 잘 알고 폭 넓은 식견을 가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 1년 내내 안내원으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3명의 자녀는 카라간다로 보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남편이 묻힌 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병든 어머니는 정든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동원령이 떨어졌지만 블라디미르 리가이는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투대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집을 습격해 고문하고 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괴롭혔다. 그루지아 전투대원으로부터도, 압하지아 전투대원으로부터도 말 그대로 어머니와 집과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현재 그는 시멘트 공장 부공장장이며 자신의 최초 전공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취미는 낚시다.

압하지아에서는 전쟁에 대해 일부러 떠올리지는 않지만, 떠올리게 되면 원통하고 쓰라린 기억뿐이다. 전쟁은 블라디미르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행복도, 가족도... 가족은 더 이상 압하지아로 돌아오지 않고 카라간다에 남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가그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 때 거대한 국가였던 곳의 지방을 가보면 당신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곳에서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드러내놓고 토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평, 불만 혹은 부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도 안 된다. 물론 당신이 진정으로 궁금해 할 경우 답을 줄 것이다. 압하지아에서 받는 연금은 현재 500루블이며 1992년 당시 10루블이었다가 이후 20루블이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만약 세 줄 아파트가 있으면 여름 한철 세를 받은 돈으로, 농사지을 땅이 있으면 꿀을 팔아서 산다. 검소하고 자급자족하면서 빼어난 일꾼의 모습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한때 유명한 휴양지였던 가그라에서 현재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카프카스 고려인, 사할린 고려인 등과 같이 서로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들 모두를 통합시키는 두 가지의 문화 -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가 있다. 하나된 언어인 러시아어가 있으며 근면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이 있다.

• 참고문헌

<자료>

РГАЭ. Ф.1562 Оп. 336 Д.966. (Таблица 15д.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ГАЭ РФ, ф. 1562, оп. 336, ед.хр. 1566а -1566д (Таблица 3,4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родному языку).

РГАЭ РФ, ф. 1562, оп. 336, ед.хр.3998-4185 (Таблица 7с.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одному и второму языку).

РГАЭ. Ф. 5675, оп. 1, д. 1.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25. № 49.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26 года. М.: Издание ЦСУ Союза ССР, 1928-29. Том 9. 10. 11. 14. 15. 16. 17.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39 года.

http://demoscope.ru/weekly/ssp/rus_nac_39_gs.php?reg=81&gor=2&Submit=OK.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2002 года.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г.

<http://www.perepis-2010.ru/>

<연구논저>

Бугай Н.Ф.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Волкова Т.В.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вопросу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4 г., № 3.

Карабулатова И.С. Обобщенный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йц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ассовом сознании тюменцев //

Корейцы в Тюменском крае.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4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ю и 75-летию Тюме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юмень, 2005.

Сон Ж.Г.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ли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1920-1930. М., 2013.

Хабермас Ю. Гражданство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 Хабермас Ю. Демократия. Разум.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Московские лекции и интервью, М. Академия. 1995.

Хан В.С., Ким Г.Н.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009.
<http://koryo-saram.ru/ura-novy-j-sajt/>

1991~2014, Incremental changes and expertise of Russia and the CIS Koreans community

Song Zanna*

This paper has examined the reason why the ethnic Koreans of today have emerged as experts in diverse fields in Russia and Central Asia and figured out that the reason could be attributed to the sustenance and the changes of the ethnic Korean communities.

This study, therefore, has analyzed the residences of the ethnic Koreans in order to analyze how they have successfully adapted to Russian culture. Before 1937 when they were forcefully migrated to the region, the majority of the ethnic Koreans lived in the Primorsky region. But population statistics showed that they had already lived across the whole region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1920s. After they were forced to live in Central Asia, they not only resided in the region but across the whole area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each region, they worked diligently and kept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s in order to adapt to the living conditions.

In the process, the ethnic Koreans have focused on two aspects — labor and education — in order to survive in the former Soviet Union. With regard to labor, they tried to preserve their national culture by working at Kolkhoz, a form of collective farm. But in order to surviv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minority, they paid interest to the aspects of education. As

* Professor, Moscow Higher National Economic University

of today, more than 70% of Koreans have forgotten how to speak Korean language and consider Russian as their first language.

As a result, the ethnic Korean people could have emerged as experts in various fields while still maintaining a unique culture of their own as the ethnic Korean people.

Key words: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population statistics, Russia, Central Asia, education, language

번역 : 이완종(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필자 E-Mail: janna_song@hotmail.com

투고일: 2016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1일